

# '전북자치도 게임산업 미래포럼' 개최

### 호원대, 전북 게임산업 미래 방향성·지역기업과 상생 방안 등 모색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최근 전북 게임산업의 미래 방향성과 지역 게임 기업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게임산업 미래포럼'을 전북테크비즈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호원대학교는 2024년 RIS 자율과제 '전북특별자치도 게임산업 현황분석과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연구책임 호원대학교 서현준 교수)'를 진행 중이다.

포럼은 1부 '게임시장,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2부 '게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과 제안', 3부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전략적 방향성'이라는 3개의 테마로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전북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게임 기업들과 게임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들, 게임 관련 연구자들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발표 및 토론의 장을 열었다.

1부 행사는 식전 행사와 RIS 과제에 참여 중인 호원대 컬처테크 융복합센터장 조항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2부에서는 (주)트라이펄게임즈의 정만순 대표와 (주)엔돌핀커넥트의 조용래 대표가 다양한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정만순 대표는 콘솔 게임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Full 3D 소울라이크 게임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개발 경험을 참가자들과 공유하였으며, 조용래 대표는 지방 소멸 시대에 게임산업이 긍정적 희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바일 게임 개발의 성공 노하우를 사례



호원대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 게임산업 미래포럼'을 전북테크비즈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로 들어 설명했다. 이어지는 3부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전략적 방향성'에서는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와도연 교수의 사회로 전북 지역 게임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주)모야지오 이경범 대표, 훈이티스 이훈주 대표, 피터앤폴 이권주 대표, 보드와패드 김남원 대표가 토론자로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전북 게임산업의 시장 현황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방안의 필요성, 향후 전북지역 게임 기업 간의 협력 방안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각 게임사 대표들이 게임개발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문제와 성공의 노하우, 향후 중앙정부와 도에 요구하는 정책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도 제시되었다. 이어지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청년 인재의 수급, R&D 지원, 해외 진출 등 현재 기업들이 마

주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 및 전북지역 게임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 등이 중요 아젠다로 논의됐다.

최부현 산하협력부단장(공연미디어 학부 교수)은 "호원대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 게임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 중이며,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 소재 게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

특히 지역 기업들이 10여년 만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토론자의 말씀에서 지역콘텐츠 산업을 위한 대학이 가진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며 "기업들이 체험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게임산업 분야에서 지역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 방향성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한자리에'

### 익산시, '2024 전북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개최

역사문화 관광도시 익산에서 전북 관광의 최일선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모여 역량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웨스턴라이프 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2024 전북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320여 명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 등 현장의 소리를 공유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관광지에서 현장감 있는 해설로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워크숍 첫날 송광인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문화관광해설사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해설사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14개 시군 해설사 역량증진대회를 통해 시군의 우수한 해설 기법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둘째 날은 익산의 관광지인 미륵사지와 고도한눈에(愛) 세계유산센터, 왕궁리유적, 아가페정원을 방문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가진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한(韓) 문화 발상지 익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자체 관광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해설사분들의 역량에 달린 만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신규 모범음식점

#### '짜보식당 본점' 선정

18일 군산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친절한接客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반음식점 55개소를 2024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했다.

올해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짜보식당 본점(신창동) 1개소로 음식의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앞으로 짜보식당 본점은 재실사를 통해 재지정된 54개소와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으로 운영된다.

지정된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서 및 표지판 전달,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등이 지원받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를 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2050 탄소중립 녹색

#### 성장 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익산시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익산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는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 조성과 녹색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세부 사업을 검토하고 신규 발굴 사업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적 계획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2034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국가 기본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해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습지 △수력 △에너지 △해양 △토지 △수질 △기타 △86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교통안전 도시 조성 박차

### 모현동 서부보훈지청 사거리 등 3곳 시설 정비

익산시가 교통사고 잦은 곳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교통안전 도시 조성을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오는 12월 완료로 목표로 8억9,000만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3개소로 △모현동 서부보훈지청 사거리 △모현동 서관 사거리 △동익산 사거리~동산동 우남아파트 사거리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 교통공단,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교통안전 증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사고 예방과 보행 환경의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신호대기 공간 마련을 위해 교차로 내 교통섬을 정비·조성한다. 또한 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 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안전표시 표지판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식 강화에도 힘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2024년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꿈키움 발표회' 성료

### 다양한 공연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숨겨진 재능·매력 발산

2024년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꿈키움 발표회가 지난 15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지역아동센터 꿈키움 발표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이 1년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다. 이번 발표회는 오식도지역아동센터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마지막 육서지역아동센터까지 총 14개의 팀이 ▲악기 ▲합창 ▲댄스 3가지 분야에서 500여 명의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숨겨진 재능과 매력을 발산했다.

공연 외에도 평소 센터를 다니면서 배우고 작업한 다양한 미술작품이 행사장 곳곳에 전시되어 관객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아동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느라 긴장됐지만 친구들과 연습을 많이 해서 공연을 잘한 것 같다."라며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남겼다.

현장을 찾은 한 학부모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재능과 끼가 있는 줄 몰랐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채현주 회장은 "꿈키움 발표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멋진 공연을 보여주어서 감동을 받았고 아동 청소년들이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준 시장은 "행사가 열리기까지



수고해주신 채현주 회장을 비롯하여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해주신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함께 소통하며 활동했던 시간들이 아이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기를 바란다."라며 아이들을 격려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차량 등록·폐차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익산시, 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서 자동차 등록 신청·조회 가능

익산시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말소 신청, 자동차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인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차량 소유주가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365는 자동차의 구입부터 폐차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자동차 보험 비교는 물론 취득세와 공채 등 등록 비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중고차 시세와 매물 차량,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허위 매물 차량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영영용 차량 또는 법인 차량은 이용이 불가하며, 신규 등록 시 번호판 수령을 위한 방문은 필요하다.

이경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온라인 자동차등록 서비스를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